

# 蔡萬植文學의 諷刺： 〈太平天下〉를 中心으로

姜 晶 植\*

## 目 次

- |            |             |
|------------|-------------|
| I. 序 言     | 3. 거리와 叙述方式 |
| II. 諷刺의 方法 | III. 諷刺의 意圖 |
| 1. 技巧      | IV. 結語      |
| 2. 플롯      |             |

## I. 序 言

蔡萬植은 自由로운 創作生活이 어려웠던 1930年代에 主要 作品을 써낸 作家로서 散文精神이 투철한 이로 꼽힌다.

受難期의 作家이면서 自身도 또한 우울한 生涯를 보낸 蔡萬植은 諷刺라는 面에서 主로 그 文學的 特性이 論議되어 왔다. 그러나, 그의 諷刺的인 面에 對한 論議의 進展은 때로 지나친 強調의 인상을 받아왔고 그에 對한 批判도 있어 왔다. 그런데도 이러한 諷刺的 特性에 對한 研究는 아직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는 듯하다.

本稿에서 하필 蔡萬植의 諷刺에 對하여 論하고자 하는 뜻은 諷刺가 그의 全面的 特性이라는 認識에서가 아니라 아직도 미진한 一面的 特性에 對한 연구에

보통이 되고자 하는 데 있다.

이러한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筆者는 蔡萬植文學의 諷刺性이 가장 잘 드러나 있는 作品의 하나인 <太平天下>를 中心으로 하여 作品에 드러난 諷刺의 方法에 注目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諷刺의 技巧, 플롯, 거리와 叙述方式 等に 대하여 살핀 다음 作家의 諷刺의 意圖를 통해 作家精神을 考察할 계획이다.

## II. 諷刺의 方法

### 1. 技巧

作家가 作品을 쓰는 데는 보통 어떤 意圖가 介在한다고 말한다. 諷刺小說에 는 諷刺의 意圖가 있다.

諷刺文學을 論議하는 자리에서 흔히 쓰이는 말이 있다. 反語, 戲畫, 誇張 等이 그것이다. 이러한 修辭的 要素는 作家의 諷刺의 意圖를 傳達하기 위한 方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들 修辭的 要素는 어떤 對象을 諷刺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가벼운 意味에서 諷刺의 意圖를 보통 쓰는 主題라는 말로 바꿀 수 있다면, 主題를 傳達하기 위해 使用된 技術을 諷刺의 技巧라 이룰 수 있겠다.<sup>1)</sup>

여기서는 어떤 人物을 諷刺對象으로 하고 어떤 修辭的 方法으로 諷刺했는가를 살피고자 한다.

作家가 어떤 人物을 作品에 提示하는가를 살피는 것은 作家의 意圖를 파악하는 데 關鍵이 된다는 平凡한 事實을 記憶한다면 諷刺의 技巧의 하나로써 우선 人物의 選擇을 살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太平天下>의 人物을 살피는 作業이 必要해진다.

<太平天下>의 主人公 尹直員은 어떤 人物인가.

守畝의 토색질에 시달리고 화적패에게 죽임을 당한 윤용규의 아들 尹直員 [尹斗燮]은 守畝와 화적이 없는 植民地 狀況의 朝鮮을 太平天下로 認識한다. 그는 家門을 빛내기 위해 族譜에 鍍金을 하고 새로 구민 다음, 鄉校의 直員벼

1) 閔玟基, 諷刺小說의 構造的 特性, 「연구논문집」 10권2호, 울산공대, 1979. 참조.

슬을 사는 한편 사석과 손자에게 兩班婚姻을 시킨다. 그리고 손자 슬을 郡守와 警察署長을 만들어 내놓으려 한다.

尹直員은 自足的인 것을 추구하는 데는 놀라운 '奇術'을 갖고 있으나, 現實認識이란 面에서는 그야말로 白痴인 植民地의 地主階級の 한 典型이다. 그는 日帝의 朝鮮強點을 自身の 富를 지켜 주기 위해서 動兵한 것으로 理解한다.

大多數의 百姓이 신음하는 植民地狀況을 太平天下라고 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作家는 歷史意識이 전혀 없는 尹直員 登場시켜 그의 偏執狂의 貪慾을 批判함으로써 讀者로 하여금 植民地의 狀況의 不當性까지도 認識하도록 한다. 尹直員에 대한 批判은 그가 肯定하는 世界에 대한 批判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잠시 <痴叔>을 살피는 것도 도움이 되겠다.

<痴叔>에서의 '痴叔'은 社會主義運動을 하다가 폐인이 된 人物로 歷史意識이란 面에서는 尹直員과 對照되는 人物設定이다. 한편 <痴叔>의 '나'는 尹直員과 同類의 人物이라 할 수 있다.

……십만 원이면 멍멍거리구 살게 아니라구요. 그리고…… 내지 여자한테 장가만 드는 게 아니라 성명도 내지인 성명으로 갖고, 집도 내지인 집에서 살고, 옷도 내지식으로 입고, 밥도 내지식으로 먹고, 아이들도 내지인 이름을 지어서 내지인 학교에 보내고……<sup>2)</sup>

日人에게 잘 보여 평생 십만 원을 모으고 完全히 日人이 되어 멍멍거리고 살겠다는 것이다. 尹直員보다 더욱 歪曲된 모습이라 할 이 青年의 歷史意識과 世界觀은 言語道斷이다.

그의 慾望은 尹直員의 慾望과 별로 먼 거리의 것이 아니다. 주어진 狀況을 利用하여 一身의 富貴를 추구하는 歪曲된 人間像이 이들의 公分母인 셈이다.

尹直員이 日帝侵略政策으로 그 地位가 保障되었던 植民地의 地主階層의 典型이라면 <痴叔>의 '나'는 암울한 植民地 狀況에서 歪曲된 希望을 갖고 살아가는 젊은 무식꾼의 典型이라 할 수 있다.

2) 蔡萬植選集, 新韓國文學全集4, 語文閣, p.422. 이하 作品引用은 이 冊의 면수만 표시한다.

〈痴叔〉과 〈太平天下〉의 諷刺對象人物은 否定的인 狀況을 通察하지 못하고 肯定해 버리는 데서 共通點을 찾을 수 있다.

〈논이야기〉에서,

일 없네. 난 오늘버튼 도루 나라 없는 백성이네…… 독립됐다구 했을 제, 내  
만세 안 부르기 잘했지. (pp. 456-457)

라고 하는 한생원도 결국 같은 部類의 人物인 셈이다.

〈太平天下〉의 餘他人物도 時代認識이란 면에서는 尹直員보다 나은 點이 없다. 단지 社會主義運動을 하다 피검되는 鍾學을 痴叔과 가까운 肯定的 人物로 設定했을 뿐인 것이다. 諷刺의 焦點이 尹直員에게만 집중되어 그를 제외한 餘他人物은 소홀리 취급되고 말았다.<sup>3)</sup>

尹直員이라고 해서 自由로운 個性의 人物은 못된다. 諷刺對象人物은 처음부터 作家의 諷刺의 意圖에 依해 設定되어 獨自性を 喪失한다.<sup>4)</sup> 그들의 性格은 諷刺의 意圖에 적합하게 固定되고 만다. 大體로 偏執狂의 人物이 그 諷刺對象人物로 設定되어 批判되어 진다. 이러한 特性은 作品의 結尾를 暗示하게 된다. 이에 대해서는 플롯을 論하는 자리에서 仔細히 言及할 생각이다.

어떤 修辭의 方法으로 諷刺의 效果를 얻고 있는지 알아 볼 차례이다.

作家는 諷刺의 意圖를 達成하기 위해서 많은 修辭의 方法을 使用한다. 諷刺의 修辭的 技巧은 워낙 多様해서 諷刺의 形式에는 거의 限界가 없다고 할 정도이다.<sup>5)</sup>

이같이 多様な 修辭的 技巧가 作品에서는 어떻게 使用되었는지를 알아 보는 것이 課題다.

〈太平天下〉에서 주로 볼 수 있는 修辭的 技巧은 反語, 戲畫, 誇張 等이다. 反語의 例를 보자.

3) 鄭漢淑, 崩壞와 生成의 美學, 「民族文化研究」, 1973. 참조.

4) 閔玕基, 앞글.

Arthur Pollard, 「諷刺」, 宋洛憲譯, 서울大出版部, 1982, p. 29.

5) Arthur Pollard, 上揭書, pp. 9-10.

이 풍선이야말로 아까울사, 옛날 세상이었다면 一道의 方伯일시 분명합니다. 그런 것을 간혹 입이 비뚤어진 친구는 광대로 인식 착오를 일으키고, 동경 대판의 사탕장수들은 카라멜대장 감으로 침을 삼키니 통탄할 일입니다. (p. 268)

“이놈의 세상이 어느날에 망하려느냐?”…… “오오냐, 우리만 빼놓고 어서 망해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이 또한, 웅장한 절규이었습니다. 아울러, 위대한 선언이었구요. (p. 307)

‘一道의 方伯’과 ‘광대’, ‘카라멜대장 감’이 對比되고 있다. 作家는 一道의 方伯 감이 광대로, 카라멜대장 감으로 인식 착오를 일으키곤 한다고 ‘통탄할 일’이라고 너스레를 떤다. 그러나, 지금은 옛날도 아니고, 인식 착오를 일으킨 사람이 ‘입이 비뚤어진’ 것도 아니니 인식 착오도 아니고 아까울 것도 통탄할 것도 없다는 反語이다.

다 망해 가는 韓末에 대해 어서 망하라고 한다. 韓末의 어지러움이 亡國의 징조라는 것을 인식한다면 마땅히 국민된 사람으로서 근심을 해야 할 터인데, 그 피해가 자신에 미치지 이 따위 나라는 없어지라고 하는 것이다. ‘웅장’하고 ‘위대’한 것은 커녕 尹直員의 白痴的 歷史意識을 폭로하기 위한 反語이다. 誇張은 人物描寫에서 使用되었다.

대가가 어찌면 그렇게도 큰지, 남의 것 같습니다. 눈은 사팔이어서 얼굴을 모으로 돌려야 똑바루 보이고 코는 비가 오면 고개를 숙여야 합니다. (p. 197)

열 다섯살이라면서 몸뚱이는 네댓살이박이만큼도 발육이 안되고 그렇게 가냘픈 몸 위에 가서 짹짹 놀라게 큰 머리가 올라 앉은 게 하릴 없이 콩나물 형국입니다. (p. 312)

앞의 例는 使童인 삼남이에 대한 人物描寫이고 뒤의 것은 태식에 대한 描寫이다. 태식을 ‘삼남이와 동기간이랬으면 꼭 맞게 생겼다’고 한 것으로 보아도 이들 人物의 描寫는 性格創造와는 거리가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濁流〉에서 정주사를 人間紀念物이라 한 것을 빌려 이들을 또한 人間紀念物이라 할 수 있겠다. 奇形的 特性만을 強調해서 人物을 格下시키고 있다.

戲畫의 例도 發見할 수 있다. 尹直員은 鄉校에서 風月하는 掌議와 선비들에게 다음과 같이 묻는다.

대체 거, 공자님허구 맹자님허구 팔씨름을 하였으면 누가 이겼으꼬? (P.309)

이 場面은 鄉校의 直員의 직분에 어울리지 않는 尹直員의 淺薄함을 戲畫化한 例이다.

〈太平天下〉에서 反語, 誇張, 戲畫는 다른 修辭的 技巧인 비꼼, 嘲弄, 위트 등과 뒤섞여 諷刺의 意圖에 기여한다. 이러한 修辭的 技巧은 諷刺對象人物에 대한 혐오와 경멸감을 유발하여 讀者로 하여금 改善과 克服의 意志를 갖게 한다. 여기에 諷刺作家의 一次的 意圖가 있는 것이다.

## 2. 플롯

〈太平天下〉를 보면 플롯이 산만한 인상을 받는다. 蔡萬植은 主題意識은 強한 反面 美意識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事實 〈太平天下〉의 플롯은 정교하지 못하다. 그러나 이를 美意識의 不在로 인한 결과로만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點이 있다.

一般的으로 諷刺對象은 偏執狂者가 적합하다고 한다.<sup>6)</sup> 尹直員도 偏執狂의인 人物이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 人物은 諷刺의 意圖에 依해 獨自性을 喪失한 人物이다. 諷刺作家는 事件의 解決보다는 이러한 人物이 벌이는 온갖 狂態에 초점을 둔다. 狂態라는 無秩序한 行爲를 다루기 때문에 플롯은 有機的일 수 없고 에피소드적일 수밖에 없다.<sup>7)</sup>

〈太平天下〉는 ‘尹直員 영감 歸宅之圖’부터 ‘亡秦者는 胡也니라’에 이르기까지 이와같은 題目이 붙은 것이 15個가 된다. 이들을 章으로 다룬다면 15章으로 이뤄진 長篇小說인 셈이다.

그러나, 作品을 읽어 보면 一般的인 小說의 플롯과는 달리 에피소드의 接續으로 이뤄진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15個의 小題目은 에피소드에 적합하게 붙

6) 閔玘基, 앞글.

7) 앞글.

여진 것으로 에피소드간에 처음부터 有機的인 結合을 意圖한 흔적은 없는 것 같다.

尹直員은 獨自性을 喪失한 人物이고, 性格이 固定되어 發展할 수 없는 平面的인 人物이다. 作家는 공격과 批判을 主된 意圖로 하기 때문에 사태가 好轉되는 일이 없게 된다. 尹直員에게 일어나는 사건은 惡化—路를 걷게 될 뿐인 것이다.<sup>8)</sup>

惡化의 中斷 即 事件의 解決은 <太平天下>에서 期待할 수 없다. 이 小說의 끝은 '亡奏者는 胡也나라'는 題目을 달고 있다. 尹直員은 鍾學이 社會主義 運動을 하다가 日警에 피검된 것을 듣고 절규한다.

화적패가 있느냐? 부랑당 같은 守命들이 있느냐? 자—부아라..., 거 리 거리 순사요 골골마다 공명헌 政事, 오죽이나 좋은 세상이어 이런 태평천하 에 태어난 부잣집놈의 자식이 더군다나 왜 지가 땅땅거리구 편안하게 살 것이 지, 어째서 지가 세상 망쳐놓 부랑당패에 參섭을 헌담말이여, 으응?(p. 398)

尹直員의 狂態를 계속 批判해오던 作者는 그의 慾望이 무너지는 것을 또 秦을 망한 자는 오랑캐(胡)가 아니라 진시황의 아들 胡亥였다는 것에 견준다. 지금까지 尹直員의 慾望이 모두 수포로 돌아감을 보여 왔으면서도 鍾學의 피검을 가지고 그로 하여금 또 한번 狂態를 연출케 한다.

이것은 분명 事件의 解決은 아니다. 惡化의 한 樣相일 뿐이다. 尹直員의 妄想이 무너질 것을 讀者는 이미 알고 있었고 作家도 그렇게 結尾를 추렸을 뿐이다.

마지막 場面까지 尹直員의 現實認識이 不變이라는 것은 作家의 변함없는 諷刺의 意圖를 잘 나타내준다.

蔡萬植의 諷刺小說은 대개 플롯이 정교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太平天下>를 통하여 본 바와 같이 非有機的이고 에피소드적인 플롯이 作家의 美意識의 缺如에서 온 것은 아니다.

諷刺對象의 狂態를 批判的으로 그리기 때문에 諷刺小說의 플롯은 一般的으

8) 앞글.

金啓龜는 <太平天下>의 構造를 沒落의 構造로 파악했다. 金啓龜, 蔡萬植의 世態小說考察, 「국어국문학 90」, 국어국문학회, 1983. 참조.

로 非有機的이어서 산만하다. 蔡萬植이 諷刺的 意圖에 充實하면 할수록 플롯은 정교한 데서 멀어졌다.

### 3. 거리와 叙述方式

諷刺作家는 諷刺臺에 그 對象을 올려 놓고 풍자 대상의 狂態를 보여주고 直接 批判하기도 하는 사람이다. 따라서 作家는 자기가 批判하는 일이 正當하다는 것을 讀者로부터 認定받아야 한다. 讀者로부터 同意를 얻어 낼 수 있어야 諷刺가 成功할 수 있다.

諷刺가 讀者로부터 同意를 얻기 위해서는 諷刺對象에 對하여 讀者로 하여금 동정의 여지도 없다고 느끼게 해야 한다. 讀者로 하여금 一定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그 한 方法이 된다.

作品中 몇 例를 보기로 하자.

이 이야기를 쓰고 있는 당자 역시 전라도 태생이기는 하지만, 그 전라도 말이라는 게 좀 경망스럽습니다. (p.288)

관중이 없어서 웃어 주질 않으니 좀 섭섭한 장면입니다. (p.298)

단가로는 맹자 건 양혜왕짜리요 한테 망구강산의 망구는 誤植이 아닙니다. (p.351)

‘이 이야기를 쓰고 있는’, ‘망구는 誤植이 아니’라는 데서 알 수 있듯이 作家는 讀者에게 항상 자신이 冊을 읽고 있음을 깨우치면서 이야기에 빠져들지 않게 하려고 努力하고 있다.

관소리를 口演하듯이 이야기를 展開하던 作家는 ‘관중이 없어서 웃어 주질 않으니 좀 섭섭’하다는 말을 함으로써 같은 效果를 얻고 있다.

이러한 作家의 거리에 대한 배려는 讀者의 諷刺對象에 대한 동정심을 배제하는 한편으로 客觀的 位置에서 사태를 관망하게 함으로써 결국 讀者를 자기편으로 끌어 들이려는 意圖에 따른 것이다.<sup>9)</sup> 즉 作家가 意圖하는 諷刺的 情緒를 效果的으로 유발하기 위해서는 諷刺對象에 대한 批判이 심한 것이라거나 잘못

9) 閔玟基, 앞글.



된 편견에서 나온 것이라는 생각을 讀者가 갖지 못하도록 할 必要가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거리는 諷刺의 效果를 유지하는 한 方法이라 할 수 있다.

같은 諷刺小說이라 하지만 <太平天下>와 <痴叔>의 叙述方式은 서로 다른 點이 있다.

<痴叔>은 不定의 人物인 話者가 肯定의 人物인 痴叔을 공격하면서 자신의 俗物根性을 드러내도록 함으로써 劇의 效果를 얻고 있다. 이러한 叙述方式은 「少妄」에서도 쓰였는데 作家의 諷刺의 意圖를 달성하는 데 效果의으로 쓰였다고 할 수 있다.

<太平天下>를 두고 平面的인 諷刺에 머물렀다고 하는 지적은 그 叙述方式에 어느 程度의 責任을 두고 있는 듯하다.

<痴叔>이 作家의 모습이 가려진 데 비해 <太平天下>의 경우는 作家가 直接 作中話者로 나서서 이야기를 이끌어 나간다. 作家는 作品表面에 얼굴을 내밀기도 한다. 이는 거리를 유지하는 데 어느 程度 기여했다고 보지만 심할 경우는 問題가 된다.

作家가 作中話者로 나서고 그것이 심하면 觀念의 表白이 될 우려가 있다. <太平天下>에 作家는 이런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諷刺의 대부분을 主人公의 話術에 의지하고 만다.

<太平天下>에서 諷刺의 對象이 된 尹直員의 話術이란 險談鄙語에 不過하다.

“그릿스리라! 짹 찢을 년!……” 누구한테든지 욕을 하려면 우선 그, <찢을 년>이라는 서양말의 冠詞같은 것을 붙입니다. 남 잘 것 같으면 <잡아 뽐을 놈>을 붙이고……. (p. 298)

場所를 말할 때도 ‘그 년의 디’라고 하며 日警에 피검된 鍾學에게 ‘그런 쳐 죽일 놈이, 깎아 죽여두 아깍잡을 놈이!’라는 辱을 한다.

<太平天下>는 이러한 險談鄙語가 作品全面에 쓰였을 程度로 主人公의 話術에 의존하고 있다.<sup>10)</sup> 尹直員이 話術때문에 諷刺對象이 된 것이 아님이 分明하다면 이러한 叙述方式은 逆效果만 유발한 셈이다.

10) 鄭漢淑, 앞글.

한편 作家가 作中話者가 되어 作中人物을 諷刺하려 하니 자연 파노라마적인 事件展開를 하지 않을 수 없다. 5代에 걸치는 人物을 登場시키면서도 한 자리에 모아 그들의 個性, 生活方式을 對比시키지 못하고, 따로 登場시킬 수밖에 없었다. 尹直員을 제외한 人物을 無個性화하고 主題를 不透明하게 한 結果가 되고 말았다.<sup>11)</sup>

敘述方式의 缺陷은 <太平天下>의 諷刺를 平面的인 것으로 만들고 말았다. 이로 因해 作家의 現實認識이란 바탕 위에 획득된 諷刺精神이 反感되어 나타난다.

### Ⅲ. 諷刺의 意圖

지금까지 <太平天下>를 대상으로 諷刺의 技巧, 플롯, 거리와 敘述方式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이들을 살핀 결과는 作家의 諷刺意圖를 充分히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

<太平天下>를 통해 作家가 나타내려한 것은 무엇일까. 이러한 作家의 意圖를 살피는 것은 곧 作家精神을 살피는 作業이 된다.

序言에서도 밝혔듯이 蔡萬植은 自由로운 創作生活에 많은 제약이 있던 1930年代에 <레디메이드 人生>(1934), <明日>, <太平天下>(1939), <濁流>(1939) 등 主要作品을 썼다. 어려운 時代에 活動했으면서도 透徹한 散文精神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諷刺를 통해서 可能할 수 있었다. 諷刺라는 迂迴的 方法의 選擇이란 것도 따지고 보면 當時의 餘他 作家들의 方向과는 다른 作家意識의 所産이라 하겠다.

作家로서 붓을 쥐거나 現實을 外面하지 않는 方法으로써 그가 선택한 것이 바로 諷刺였던 것이다. 이로 볼 때 그의 諷刺는 強烈한 現實認識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

<太平天下>에서는 우선 主人公의 白痴의 現實認識을 諷刺하고 있다. 그러나 作家가 作品을 통해서 主人公의 現實認識을 批判하고 있다면, 作家의 本意圖는 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님도 알아야 한다. 作家는 白痴의인 歷史·現實意識의 所有者를 통해 그가 肯定하는 歷史·現實에 대한 批判을 하고 있는 것이다.

11) 앞글.

尹直員이 太平天下로 認識하는 日帝殖民地狀況을, 30年代란 時代의 不當性을 諷刺하고자 한 것이 作家의 意圖인 것이다.

尹直員과 같이 歪曲된 現實認識을 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殖民地 現實을 망각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批判이면서, 殖民地 現實에 대한 批判인 것이다.

韓末의 守令에 대한 批判은 그의 다른 작품인 <논이야기>에서도 보이는 것으로, 守令은 토색질을 業으로 하는 사람에 지나지 않고, 화적패와 한가지로 불한당이다. 그런데 尹直員은 손자로 하여금 郡守와 경찰서장이 되게 하는 게 꿈이다. 日帝時代의 郡守와 韓末의 守令을 同一한 것으로 놓고 볼 때 불한당같이 여기던 守令의 자리에 손자를 앉히려는 것은 守令에 대한 복수이면서 回襲制度에 대한 批判 그것이다.

諷刺는 그 對象이 肯定하고 추구하는 價値와 실제 現實과의 差異를 讀者로 하여금 認識하게 함으로써 現實의 克服을 希求케 하는 方法이다. 韓末時代를 末世라 認識하면서도 殖民地時代를 太平天下로 認識하는 尹直員을 통해서 이러한 作家의 諷刺精神을 볼 수 있다.

韓末을 末世라고 한다면 殖民治下는 더 末世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殖民治下를 太平天下라고 하는 것은 價値의 顛倒를 意味한다.

現實의 顛倒된 價値를 드러내는 것은 作家의 義務이면서 窮極的인 目標일 것이다. 그러므로 點에 이런 充實한 作家를 散文精神이 透徹한 作家라 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蔡萬植에 대한 評價는 全的으로 옳은 것이다.

散文精神, 主題意識이란 면에서 그는 뛰어난 作家인 것이다.

#### Ⅳ. 結 語

諷刺는 作家가 否定的인 人物이 추구하는 否定的인 價値를 길으로는 肯定하고 찬동하는 듯한 態度를 取하나 內面的으로는 철저히 否定하면서 成立한다. 그러나 諷刺對象이 추구하는 價値는 진정한 價値와 差異가 심해 作家가 숨겨둔 진정한 價値를 부각시켜 주는 役割을 한다.

이와 같은 諷刺의 機能을 認識하고 文學으로 形象化한 것은 朴趾源에서 벌써 그 좋은 例를 볼 수 있다. 蔡萬植文學의 諷刺도 이러한 脈絡에서 理解할 수 있다.

蔡萬植文學의 諷刺에 대한 理解를 깊게 하고자 하였으나 <太平天下>라는 한 作品에 너무 의존한 셈이어서 원래의 뜻과는 거리가 많이 멀어지게 되었다. 다른 作家, 作品과의 比較考察도 앞으로의 課題로 남겨 둔다.

## 參 考 文 獻

- 金允植編. 「蔡萬植」. 文學과 知性社, 1984.
- 廉武雄編著. 「한국대표명작 채만식」. 志學社, 1985.
- Arthur Pollard. 「諷刺」. 宋洛憲譯. 서울大 出版部, 1982.
- 鄭漢淑. 崩壞와 生成의 美學. 「民族文化研究」, 1973. 10.
- 閔玗基. 諷刺小說의 構造的 特性. 「연구논문집」 10권 2호. 울산공대, 1979.
- 金奉郡外. 蔡萬植. 「韓國現代作家論」, 民知社, 1984.
- 金 龜. 蔡萬植의 世態小說考察. 「국어국문학 90」 「국어국문학회」, 1983.
- 李來秀. 「蔡萬植研究」. 東國大碩士學位論文, 1976.